경제교육연구
제28권 2호(2021. 8, pp. 57-83) http://dx.doi.org/10.37060/KJEE.28.2.3

스토브리그 경제학: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통한 경제교육

감 지 혜*

【요약문】경제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면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찾을 수 있는 Mankiw의 경제학 1-8대 기본 원리와 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경제적 유인, 자유거래, 비교우위, 외부효과, 공공재, 시장실패, 생산성 등과 같은 주요 경제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제학 수업에서의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활용 방안은 경제학 기본 원리와 기초 경제 개념에 관한 것으로, 고등교육 전공이나 교양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중등교육 경제과목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제어】경제교육, 경제입문, 교수법, 강의, TV 드라마

* 제1저자, 하얼빈공업대학교(선전), 조교수(jkam@hit.edu.cn)

Ⅰ. 서론

대학에서 기초 수준의 경제 수업은 경제학 전공자를 위한 전공필수 수업인 ‘경제원론’과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 수업인 ‘경제학개론’으로 이루어진다. 전공자를 위한 ‘경제원론’ 수업의 경우, 경제 전공자들이 앞으로 배워나갈 내용의 바탕이 되는 미·거시경제에 대한 주요 개념과 이론이 2학기에 걸쳐 논의되는 반면에 비전공자를 위한 ‘경제학개론’ 수업은 1학기 내에 경제 전 분야에 대한 학습이 개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중등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 중 일반 선택 과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 편성·운영 현황 조사’(조상식 외, 2018)에 따르면 전체 1,462개교[1] 중 576개교[2](39.4%)에서 개설되어 타 사회과 일반 선택 과목인 한국지리(59.8%), 정치와 법(53.3%), 생활과 윤리(49.5%), 윤리와 사상(46.3%), 사회문화(45.3%), 세계사(44.7%), 동아시아사(41.7%), 세계지리(39.8%)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개설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선택 과목 결정으로 이어져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2과목 선택이 가능한 탐구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한 지원자는 총 6,480명으로 사회탐구영역을 선택한 지원자 261,887명[3] 중 2.5%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에서의 낮은 ‘경제’ 과목 개설 비율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낮은 ‘경제’ 과목 선택 비율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개설되는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 수업에서 ‘경제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소한 용어와 복잡해 보이는 이론으로 경제학을 어렵거나 지루한 학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학 학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판서와 강의에 집중하는 수업(chalk and talk)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수업 참여(active student learning)를 유도하는 교수법이 요구되어지

---

1) 특수목적 고등학교 47개교와 학교 교육과정편제표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은 가능하지만 학기별 단위 수가 구별이 되지 않거나 소요교원 수 산출 계산표만 입력한 254개교를 제외한 분석 대상 전체 학교 수를 의미한다.

2) 2018학년도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 고등학교 1,319개교 중 510개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106개교 중 43개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37개교 중 23개교를 포함한다.

3) 사회탐구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한 1,091명과 2과목을 선택한 260,796명을 포함한다.

는 바이다(Becker and Watts, 1995; Salemi, 2002; Durham *et al.*, 2007; Carter and Emerson, 2012; Hoyt and McGoldrick, 2012; Caviglia-Harris, 2016).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설명식 강의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의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중심 수업을 설계하는 등의 수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D. W. Johnson and R. T. Johnson, 1994). 그러나 이러한 수업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 수업에서의 높은 교원 대비 학생 수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제한된다. 따라서 강의중심의 설명형 수업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기보다는 강의 중 클리커(clicker)[4] 또는 휴대폰을 활용한 퀴즈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복습할 시간을 제공하고 연관된 뉴스·신문 보도자료, 문학·비문학 지문,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영화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 학습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실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추구되어지는 바이다(Becker and Watts, 1995, 2001; Sexton, 2006).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매체를 활용하여 경제학 입문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높이고 학습 내용을 시각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exton, 2006; Willingham, 202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Mateer *et al.*(2011)은 'TV for Economics', Mateer(2012)는 'Econ 1-0-What?', Wooten(2018)은 'Economics Media Library'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을 가르치는 교원이나 수강하는 학생을 위하여 학습 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매체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5] 이와 같이 다양한 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와 더불어 특정 TV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학습 내용과 연계시키는 사이트도 개설되었다. 예컨대, Ghent *et al.*(2011)은 'The Economics of Seinfeld,' Kuester *et al.*(2014)은 'The Economics of The Office', Wooten and Stau(2019)는 'Economics of Parks and

---

4) '클리커'란 수업 중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즉각적인 질의응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는 TV 리모컨 모양의 원격 조정기이다. 예컨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프로젝터(projector) 화면에 띄우면 학생들은 클리커를 사용하여 답을 제출한다. 제출된 답은 자동으로 채점되며 프로젝터 화면에는 각 선택지에 대한 응답 빈도수가 도표로 제시된다.

5) TV for Economics, Econ 1-0-What?, Economics Media Library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각각 http://www.tvforecon.blogspot.com, http://www.dirkmateer.com, https://econ.video이다.

Recreation', Wooten and Lynch(2020)는 'Teaching Economics with Superstore', Tierney *et al.*(2016)은 'Bazinganomics', Duncan *et al.*(2019)은 'The Economics of Breaking Bad', Wooten *et al.*(2020)은 'Economics of Modern Family'에서 각각 NBC의 *Seinfeld, The Office, Parks and Recreation, Superstore,* CBS의 *The Big Bang Theory*, AMC의 *Breaking Bad*, ABC의 *Modern Family* 방송분 중에서 학습 내용과 연관된 장면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다.[6] 이 외에도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지만 FOX의 *The Simpson*(Luccasen and Thomas, 2010; Gillis and Hall, 2010; Hall, 2014; Luccasen, 2014)과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ESPN의 *30 for 30*(Al-Bahran and Patel, 2015)와 같은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는 교수법도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 수업에서 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TV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경제학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스토브리그 경제학

1. 드라마 *스토브리그*

본 연구는 경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4일에 방영된 SBS 16부작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스토브리그'란 "프로 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즉, "계약 갱신이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스토브를 둘러싸고 팬들이 평판을 한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토브리그*는 야구에 관한 드라마로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나 감독이 아닌 단장을 포함한 운영팀, 선수육성팀, 전력분석팀, 선수선발팀, 홍보팀으로 구성된 경영단이 프로야구 오프시즌에 구단의 전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내용을 위주로 한다.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는 전략으로

6) Seinfeld, The Office, Parks and Recreation, Modern Family, Superstore, The Big Bang Theory, Breaking Bad, Modern Family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을 제안한다: https://www.yadayadayadaecon.com, http://economicsoftheoffi ce.com, https://economicsofparksandrec.com, https://teachingwithsuperstore.com, http://www.bazinganomics.com, https://breakingbadecon.com, https://modernfamilyecon.com.

는 구단 간 선수 이적, 신인 선수 선발, 외국인 선수 영입, 소속 선수와의 연봉 협상, 전지훈련 및 연습게임 준비와 운영, 불펜 포수, 배팅볼 투수와 같은 훈련 보조 선수 및 선수 부상 예방 전문가 고용 등의 야구 외 다른 종목 스포츠에서도 흔히 목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인 단장을 야구 전문가가 아닌 씨름단, 아이스하키단, 핸드볼단 단장 출신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야구에 문외한 시청자들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따라서 드라마 *스토브리그* 방송분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 사례에 대한 분석을 경제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할 때 적절한 예로 제시한다면 학생들의 경제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이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줄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가상의 한국야구위원회 KPB(Korea Professional Baseball) 리그의 총 10개의 구단 중 최근 10년간의 성적이 8, 8, 9, 2, 9, 10, 10, 10, 10위인 소위 만년 꼴찌팀 동진시 재송그룹 '드림즈'의 경영단이 단장을 중심으로 프로야구 오프시즌에 구단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전략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새로운 단장 영입(1회), 약한 선발 투수진 보강을 위한 상대적으로 타선이 약한 만년 준우승 구단인 '바이킹스'와의 2대2 선수 교환(2회), 신인 선발팀의 부패한 팀장 축출(3, 4회), 외국인 선수 선발(5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고용(6회), 소속 선수들과의 연봉 협상(7, 8회), KPB 리그 각 구단의 기존 2군 선수 영입 행사인 2차 선수 지명 회의에 대한 전략 구상과 실행(9회), 선수들의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비활동기간 합동훈련 금지 규정 위반을 통한 감독의 지도력 강화와 선수들의 자율훈련에 대한 유인 향상(10회), 전지훈련 준비와 운영(11회), 연습경기에서 '지는' 전략을 통한 잠재력 있는 신인 선수의 무의식적으로 공을 똑바로 던지지 못하는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입스) 극복(12회), 타선 강화를 위한 '바이킹스'와의 1대2 선수 교환(14회), 이면계약에 대한 내부 고발(15회), 해체를 막기 위한 '드림즈' 매각 협상(16회)이 다루어진다.

이와 같이 *스토브리그* 방송분에서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보다 야구에 특화된 전문적인 내용이 진행되었으나 충분한 설명이 이야기 전개에 어색하지 않게 덧붙여져 오히려 시청률은 증가세를 보였다. 닐슨코리아 시청률 통계에 따르면 *스토브리그*의 시청률은 2019년 12월 13일 첫 회 5.5%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 2월 14일 최종회에서는 19.1%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스토브리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과 출현한 배우들의 열연은 2020년 12월 31일 SBS 연기대상에서 주·조연

배우의 연기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각 방송분에 대한 내용과 전개, 그리고 높은 시청률을 고려해 볼 때,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경제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덧붙여,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방송분은 다시보기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감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SBS All VOD나 네이버 시리즈온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재생하거나 MPEG-4 비디오 파일 형식(mp4)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커머스 중 하나인 쿠팡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VOD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통하여 시청할 수도 있다. 본편 990분과 부가 영상 1,038분을 포함한 블루레이 디스크 12장으로 구성된 감독판과 2권으로 구성된 대본집도 대형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전체 방송분에 대한 동영상은 아니지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의 SBS NOW, SBS Drama, SBS Catch 채널에서는 *스토브리그*의 주요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안드로이드나 ISO 운영체제 기기를 이용할 경우, SBS앱을 설치한 후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동영상이 아니라 오디오만 온라인 상태에서 무료로 재생할 수 있다. 이러한 드라마 *스토브리그* 방송분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은 교원이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생이 수업 내용을 복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시간을 절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한다.[7)]

드라마 *스토브리그* 속 내용 중에서 경제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장면을 솎아내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이론이나 개념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대학에서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 수업의 주교재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ankiw(2020)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에서 소개된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스토브리그* 방송분을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이나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드라마 *스토브리그*와 Mankiw의 경제학 기본 원리

Mankiw의 '경제학'은 1997년에 초판이 발간된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20년에 9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Mankiw의 '경제학'은 Samuelson and Nordhaus(1948 초

7) 본 문단에서 소개된 SBS All VOD, 네이버 시리즈온, 유튜브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allvod.sbs.co.kr, https://serieson.naver.com, https://www.youtube.com.

판, 2009 최신 19판), McConnell *et al.*(1960 초판, 2020 최신 22판), Miller(1976, 초판, 2020 최신 20판), Case *et al.*(1988 초판, 2019 최신 13판), McEachern(1988 초판, 2017 최신 4판), Parkin(1989 초판, 2018 최신 13판), Arnold(1992 초판, 2018 최신 13판), Colander(1993 초판, 2019 최신 11판), Bade and Parkin(2001 초판, 2020 최신 9판), Schiller and Gebhardt(2002 초판, 2018 최신 15판), Krugman and Wells(2005 초판, 2017 최신 5판), Hubbard and O'Brien(2006 초판, 2020 최신 8판), Acemoğlu *et al.*(2014 초판, 2017 최신 2판)의 교재와 함께 대학교 1학년 경제학 전공 수업인 '경제원론' 수업이나 교양 수업인 '경제학개론'의 주교재[8]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Madsen, 2013).[9] 국문으로 저술된 교재로는 조순 외(1978 초판, 2020 11판), 김대식 외(1985 초판, 2018 7판), 이준구 · 이창용(1997 초판, 2020 6판), 안홍식(2003 초판, 2019 6판) 등의 저서가 대학 강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Mankiw의 '경제학' 1단원은 타 교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배워나갈 내용의 바탕이 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Mankiw는 <표 1>과 같이 10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답하였다. Mankiw는 기본 원리 1-4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과 포기해야하는 것들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 다음으로 기본 원리 5-7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데, 시장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 원리 8-10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하여 서술한다. 나라 안에서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나라 전체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으며 지출이 생산 능력을 벗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와 같이, Mankiw는 1단원에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

8) 교양 수업인 '경제학개론'의 경우, 1학기 내에 경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므로 본 문단에서 언급된 교재의 모든 단원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교양 수업용으로 기업행동, 산업조직, 노동시장, 개방거시경제 단원 등이 삭제한 형태로 출간되는 교재도 있다. 예컨대, Mankiw, Schiller and Gebhardt, Hubbard *et al.*, Krugman and Wells의 'Essentials of Economics', Bade and Parkin의 'Essential Foundations of Economics' 등이 여기에 속한다.

9) Madsen(2013)이 분석한 12개의 교재에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던 Samuelson and Nordhaus와 최근 인기가 있는 Acemoğlu, Laibson, and List 교재를 덧붙여 서술했다.

Mankiw의 10대 기본 원리 중 1-8대 원리를 기준으로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어떻게 경제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경제학 기본 원리

#	10대 기본원리	주요 개념
1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희소성
2	어떤 것의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기회비용
3	합리적 판단은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에 의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합리성, 근소차
4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
5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거래, 비교우위
6	시장은 일반적으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다.	보이지 않는 손
7	정부는 경우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외부효과, 공공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생산성
9	정부가 화폐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물가, 통화정책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 관계에 있다.	물가상승, 실업

주: 제 2행은 Mankiw(2020)의 '경제학' 9판 1부 1장의 경제학 기본 원리 1부터 10까지의 내용을 (pp.1-13) 정리하였다.

Ⅲ. *스토브리그* 속 경제학 기본원리

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1)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People face trade-offs).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1대 기본 원리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는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옛말[10]의

10)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옛말은 술을 주문하면 안주가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점에서 비롯하였다. 이러한 식당에서의 식사는 '공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술을 주문해야 제공된다는 점과 안주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짜가 아니다.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도 안주에 대한 값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공짜' 안주 제공이란 광고로 더 많은 손님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안주로 간이 센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주류 판매량을 늘려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공짜' 안주는 사실상 '공짜'가 아니다.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하루 24시간 중 6시간을 경제학 공부에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6시간 동안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 수 없다. 시간은 무한하게 주어지지 않고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순간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 1대 기본 원리는 드라마 *스토브리그* 5, 9회 방송분 중 길창주 선수의 미국 MLB(Major League Baseball) 진출과 한국에서의 현역 군복무, 그리고 MLB 잔류와 KPB 리그로의 복귀 사이에서의 선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5회에서 길창주 선수는 과거 MLB 진출 후 아내의 심장이식 수술을 위한 국적 포기 후 미국 잔류와 한국 국적자로서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한국으로의 귀국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아내는 대기자의 이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았지만 본인은 병역기피에 따른 비난 여론과 KPB 협회 징계로 인하여 한국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졌고 부상 이력과 성적 하락으로 소속 구단에서도 방출되었다. 여기에서 '드림즈'의 단장은 외국인 선수로서 KPB 리그 복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길창주 선수는 선수로서 불확실한 입지 속 미국 잔류와 외국인 선수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고 KPB 리그로의 복귀 중 후자를 선택하였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길창주 선수는 한국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 이름인 '길창주'를 버리고 '로버트 길'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에 참가해야 했으며 과거의 병역기피로 인한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림즈'의 경우, 선발 투수로서 능력이 우수한 '희소한 자원'인 길창주 선수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영입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였고, 다음 시즌 구단의 전력 향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었으나, 길창주 선수의 병역기피로 인한 악화된 여론을 감수해야 했다. 9회에서 길창주 선수는 한국에서 야구를 계속 하고자 시즌이 끝난 후 국적을 회복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을 여론에 밝혔다. 이로써 군복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으나 병역기피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길창주 선수에 대한 방송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 1대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소재로 '국방 서비스'라는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 서비스'가 사회에 제공되면 특정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고, 한 구성원이 '국방 서비스'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누리는 '국방 서비스'의 혜택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비경합성'을 가진다. 그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를 공법상의 의무로 지정하지 않거나, 병역기피로 인한 비난 여론 조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을 경우, 군에 복무하고자 하는 유인은 크게 감소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특정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지역 거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염려로 반대를 하면서도 '국방 서비스'의 혜택에는 '무임승차'(free rider)하고자 한다. 이러한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은 부정적 '외부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 *스토브리그* 속 길창주 선수에 대한 방송분은 Mankiw가 제시한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경제학 1대 기본 원리만이 아니라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 더 나아가 '외부 효과'와 '시장실패' 개념을 구체화하는데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어떤 것의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The cost of something is what you give up to get it).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2대 기본 원리는 선택에 대한 실제 비용은 그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한 여러 대안들 중 가장 높은 이익이 기대되는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선의 가치는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으로 정의된다.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은 드라마 *스토브리그* 3, 4회에서 찾을 수 있다. 3, 4회의 내용은 신인 선수 선발 비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드라마 속 가상의 KPB 리그에서는 실제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리그와 동일하게 전년도 순위의 역순으로 각 구단에게 신인 선수 지명권이 주어진다. '드림즈'의 경우, 수년간의 하위권 성적으로 인하여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여 유망한 어린 선수 선발을 통해서 구단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신인선발팀 고세혁 팀장은 신인 선수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아닌 지명권을 사용해서 선발하는 대가로 학부모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해당 선수가 '드림즈'의 소속 선수가 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고세혁 팀장의 입장에서 지명권을 사용해서 학부모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드림즈' 전력 향상을 위한 우수한 신인 선수 영입이나 우선 지명권을 타 구단 소속 선수와 교환하는 대안 중 더 높은 가치이다.

스토브리그 3, 4회에서 고세혁 팀장은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서 가장 우수한 통산 기록을 보유한 유민호 선수 대신 학부모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은 이창권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신인 선수 선발팀의 양원섭 팀원의 저지로 인하여

결국 유민호 선수를 첫 번째 신인 선수로 영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민호 선수는 부상으로 인하여 시즌 중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에 이창권 선수는 KPB 리그 2위팀인 '바이킹스'로 영입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신인왕에 선정되었다. 이처럼 *스토브리그*의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 대한 방송분은 경제학 제 2대 기본 원리의 핵심 개념인 '기회비용' 외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신인 선수 지명 회의 당시, 구단은 불완전한 정보인 통산기록 순위를 근거로 유민호 선수를 가장 먼저 지명하고자 하였다.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유민호 선수는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 '대리인'이 되고 구단은 관측 가능한 일부 정보만 가진 '주인'이 되어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유민호 선수는 통산기록과 같은 '주인'과의 계약에서 유리한 정보는 공개하되 부상이력과 같은 불리한 정보는 숨기려고 하는 반면에 구단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신인 선수 지명권으로 구단을 위해서 뛰거나 타 구단과의 선수 교환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여 전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구단은 부상이력이 없는 다른 선수와 계약하여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었으나 유민호 선수의 부상이력을 알지 못함으로써 유민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였다. 드라마 속 유민호 선수는 드림즈의 전력에 보탬이 되고자 재활치료 및 훈련과 함께 이른 경기 복귀를 시도하는 등의 최선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만약 드림즈가 유민호 선수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민호 선수가 보장된 계약을 근거로 계약 후 최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드라마 *스토브리그* 3, 4회 방송분은 Mankiw의 경제학 2대 기본 원리의 핵심 개념인 '기회비용'과 함께 '정보의 비대칭', '주인과 대리인 문제',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합리적 판단은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에 의한 선택에서 비롯된다(Rational people think at the margin).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3대 기본 원리는 합리적 판단은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에 의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한계적 변화의 비용과 편익 비교에 따른 합리

적 판단에 대한 내용은 드라마 *스토브리그* 2, 14회에서 찾을 수 있다. 2회에서 백승수 단장은 드림즈의 간판타자인 임동규 선수를 바이킹스로 이적하였고 14회에서는 다시 영입하였다. 구단 기념품 판매점에서 선수복 판매량 70%를 차지하는 임동규 선수 이적에 대한 경영단의 강경한 반대 앞에서 백승수 단장이 제시한 근거는 임동규 선수 이적과 바이킹스 1선발 투수 강두기 선수 영입에 따른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이다. 강두기 선수의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WAR, Wins Above Replacement)는 7.5로 임동규 선수의 6.2보다 높았다. 강두기 선수는 투수이고 임동규 선수는 타자이기 때문에 WAR 수치를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둘 사이의 WAR 차이인 1.3은 선수 교체로 인한 한계적 변화에 대한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시즌 성적 기준 14경기 차이로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드림즈에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ceteris paribus)에서 강두기 선수 영입은 수치상 다음 시즌 최하위에서 벗어나는 극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 반면에 강두기 선수의 연봉과 임동규 선수 연봉 차이는 8억 원 이상으로 WAR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비하여 더 큰 비용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드림즈 경영단은 강두기 선수와 임동규 선수의 인성과 리더십 차이로 인한 구단 내 사기 진작과 구장 펜스 연장에 따른 임동규 선수의 홈런율 저하 예상을 추가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고려하여 기대효용, 즉 구단의 전력강화에 있어서 기대되는 만족도가 더 높은 강두기 선수 영입을 위한 임동규 선수 이적을 결정하였다.

14회에서 백승수 단장은 임동규 선수를 다시 영입하기 위하여 유망한 타자 김관식 선수와 연중섭 선수를 바이킹스로 이적하였다. 앞서 드림즈의 경영단은 통산기록에서는 임동규 선수가 언급된 두 선수를 앞서지만 노장 선수로 드림즈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없고 임동규 선수의 연봉과 두 선수의 연봉 합산의 차이는 9억 원으로 비용이 편익을 상회한다고 추정하였다. 여기에 임동규 선수는 원정도박으로 인하여 한 시즌의 절반에 대한 출전 정지를 부여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2회 때와 달리 강두기 선수를 중심으로 구단을 재정비한 드림즈는 최하위 탈출이 아니라 즉시 전력감을 영입해 당장의 성적 향상을 목표로 우승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장기적으로 구단의 전력에 도움이 되는 유망한 선수보다는 즉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임동규 선수 영입이 기대효용을 최대화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드라마 *스토브리그* 2, 14회 방송분은 경제이론의 주요 개념인 '합리적 선택', '한계적 변화', '효용' 개념을 설명하는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4)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People respond to incentives).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4대 기본 원리는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에 대한 내용은 드라마 *스토브리그* 7, 8회의 구단과 선수와의 임금 협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7회에서 드림즈의 모기업인 재송그룹은 선수단 연봉 총액을 30% 삭감하였다. 이에 백승수 단장은 연공서열제를 없애고 최저 연봉 외에는 지난 시즌 성적만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기로 방식을 바꾸었다. 새로운 연봉 산정 방식으로 출장 경기가 적어서 고과 산정을 해도 인상 요인이 없는 신인 투수 유민호 선수는 최저 연봉인 2천7백만 원, 내야 수비수 곽한영 선수는 1억6천만 원, 주전 포수 서영주 선수는 2억 원, 10년간 드림즈에서 19승을 기록한 다승왕 투수 장진우 선수는 5천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즉, 선수 시장에서 희소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선수일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균형가격인 연봉이 높게 책정된다. 예컨대, 강두기 선수의 경우 연봉 조정 협상 없이 FA 계약대로 20억 원이 넘는 연봉이 책정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최저 연봉 선수의 경우, 선수 시장에 동일한 능력과 자질을 지닌 대체 가능한 다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연봉이 낮게 책정되었다. 최저 연봉 선수의 연봉은 KPB 협회의 최저임금제도인 가격하한제(price floor)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균형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초과공급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졸업 후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서 탈락하여 2군 리그로 진출하거나 대학으로 진학, 혹은 진로를 변경하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드라마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단의 보류권에서 벗어난 선수들에 대해서는 연봉 상한선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도 존재한다. 선수 시장에서 연봉 상한제는 자금이 많은 특정 구단에 우수한 선수들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구단 내 특정 선수에게 연봉 총액이 지나치게 높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러한 가격상한제는 초과수요를 발생시켜서 구단과 선수가 이면 계약을 통하여 연봉 상한제를 지키지 않을 유인을 발생시킨다.

유민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과의 연봉 협상 결렬로 인하여 백승수 단장은 타 구단인 바이킹스와 펠리컨즈 단장들을 만나서 선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2차 선수 지명 회의에서 영입 우선 선수의 포지션을 미계약 선수들의 포지션으로 지정하는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미계약 선수들의 유인을 변화시켰다. 연봉 조정 협상에서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하였던 선수들은 유출된 내부 정보로 인하여 구단에서 방출 후 타 구단에서 주전 자리 상실로 인한 낮은 출전 기회 보장에 대한 염려로 구

단이 제시한 연봉을 수용하였다. 모든 계약이 성사된 후 백승수 단장은 본인의 연봉을 반납하여 선수들의 연봉에 보태겠다는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재송그룹의 경영위기에 대한 신호로 간주되어서 재송그룹 주식이 9% 하락하게 만들었다. 이에 재송그룹은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려는 유인으로 선수 연봉 총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추가지원금은 최저 연봉 선수들의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사용되었다. 선수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이 2천7백만 원인 선수에게 3천만 원을 제공하여 생산성인 승률 상승을 의도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 임금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스토브리그* 7, 8회의 구단과 선수와의 연봉 조정 협상 방송분은 '경제적 유인',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 가격', '가격하한제'와 '가격상한제', '효율성 임금' 개념에 대한 설명에도 활용될 수 있다.

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1)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Trade can make everyone better off).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5대 기본 원리는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 5대 기본 원리는 앞서 설명한 3대 기본 원리와 함께 *스토브리그* 2, 14회 방송분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 2회에서 백승수 단장은 드림즈의 간판타자인 임동규 선수와 지역 1위가 유력한 3루 타자 고등학생 김진두 선수에 대한 지명권을 과거 드림즈의 간판 투수였던 바이킹스 소속 국가대표 1선발 투수인 강두기 선수 및 젊고 가능성 있는 타자인 김관식 선수와 2대2 교환하였다. 판단의 근거는 임동규 선수의 전반적인 타율에 비해 낮은 결정타율, 여름 시즌 순위 경쟁에서의 낮은 홈런율, 좁은 홈구장 개선으로 인한 거포가 아닌 중장거리형 타자가 될 확률, 본인 구미에 맞는 선수단을 꾸려가길 요구하는 인성, 구단의 세대교체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두 역할인 3루수 박완구 선수의 두 달 후 상무 제대이다. 만년 준우승 구단인 바이킹스의 임종무 단장 입장에서 판단의 근거는 강두기 선수의 우승 구단인 세이버스 상대로의 낮은 방어율, 임동규의 세이버스 상대 높은 타율과 3루수 보강 필요성이다.

14회에서는 다시 드림즈의 김관식 선수와 임동규처럼 될 만한 유망주인 연중섭 선수를 바이킹스의 임동규 선수와 교환하였다. 14회에서의 바이킹스는 약물복용으로 5명의 선수가 2년 간 출전 정지를 부여받았고 임동규 선수는 원정 도박을 자진 신고하여 한 시즌 절반에 대하여 출전 정지를 부여받은 상태로 우승권에 있던 2회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우승에 필요한 임동규 선수보다 2년 후 우승에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유망주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선수가 한 명도 없고 국가대표 1선발 투수인 강두기 선수를 중심으로 구단을 재정비한 드림즈의 경우 우승을 목표로 가을 시즌에 타율이 높은 임동규 선수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협회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닌 드림즈와 바이킹스 간의 자발적 자유거래를 통한 선수 교환은 양 구단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다.

해당 방송분은 경제학 5대 기본 원리와 원리 속 핵심 개념인 자유거래 외에도 '특성화'(specialization),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 '판매용의'(willingness to sell)에 대한 설명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과거 중하위권에서만 머물던 바이킹스는 유망한 투수들을 영입·훈련하여 투수에 특성화된 구단을 구축하였다. 여기에서 임종무 단장은 바이킹스가 타 구단에 비하여 투수훈련에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바이킹스가 드림즈보다 타자와 투수훈련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를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바이킹스의 입장에서 투수훈련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타자훈련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크다면 투수 육성에 특화하고 드림즈의 경우 모두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타자훈련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적다면 타자 육성에 특화하여 타 구단과의 선수 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규 선수 영입을 위하여 드림즈의 백승수 단장은 바이킹스의 김종무 단장이 구단의 2년 후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하고 유망주인 김관식 선수와 연중섭 선수를 지불할 용의를 밝혔다. 또 다른 구단인 펠리컨즈의 오사훈 단장은 김종무 단장이 이번 시즌 가을야구 진출로 본인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하고 5선발 34세 윤상민 선수와 주전 외야수 33세 고창현 선수 지불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드림즈의 지불용의와 바이킹스의 판매용의가 일치되어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임동규 선수에 대한 '공개 경매' 장면을 활용하여 교원은 '지불용의', '판매용의', 그리고 더 나아가 '수요'와 '공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경제적 잉여' 개념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

2) 시장은 일반적으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다(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6대 기본 원리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다는 것으로 드라마 *스토브리그* 4, 7회 방송분과 연관이 있다. 4회에서 드림즈의 1선발 투수 앤디 고든 선수가 일본 구단 요코하마 영입 리스트에 오르면서 연봉 조정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백승수 단장은 앤디 고든 선수를 포기하고 미국 Class AA(Double-A) 이력만 존재하는 마일스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다. 드림즈가 추정한 마일스 선수의 가치는 100만 달러 이상이었지만 마일스 선수가 소속 구단이 없는 자유 계약 신분이고 취미 생활 중 부상으로 인한 부족한 Triple-A 이력 때문에 시장에서 마일스 선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경쟁이 없다는 가정하에 50만 달러에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약 성사 직전 펠리컨즈에서 외국인 용병 연봉 상한선인 100만 달러로 지불의사를 밝히면서 마일스 선수와 드림즈와의 계약은 결렬되었다. 다시 마일스 선수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드림즈가 제시한 조건은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연봉인 90만 달러에 리그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 제공과 선발 보장, 자율훈련 허가였고 펠리컨즈가 다시 드림즈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고 연봉 100만 달러에 광고료 형태의 추가금액을 제시하면서 마일스 선수와 펠리컨즈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마일스 선수의 연봉이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마일스 선수가 가진 우수한 구속, 제구, 구위 능력 때문이었다. 이러한 뛰어난 투수 능력은 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이므로 구단인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선수와 구단이 선수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마일스 선수의 실제 가치가 연봉에 반영되어 구단과 선수 모두가 만족하는 계약이 도출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경제학 4대 기본 원리 문단에서 분석한 7회에서는 연봉 총액 삭감으로 직면한 예산제약으로 백승수 단장은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고 선수들의 연봉을 지난 시즌 성적만을 근거로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고 계약이 결렬된 선수를 선수 교체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줘서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미계약 선수들은 본인이 드림즈에서 방출되어 선수 교체 시장에서 타 구단으로 이적될 경우 새로운 구단에서 주전 탈락에 따른 출전 기회 상실에 대한 염려로 연봉 협상을 매듭짓고 새 시즌 준비를 위한 훈련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앞서 경제학 1대 기본 원리 문단에서 언급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의 문단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3) 정부는 경우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Governments can sometimes improve market outcomes).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7대 기본 원리는 정부는 경우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KPB 협회를 정부로, 각 구단들은 각각 기업으로 가정한다면 경제학 7대 기본 원리는 13회의 금지 약물인 아니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복용 발각으로 인한 선수 다수의 경기 출전 정지, 15회의 강두기 선수에 대한 이면계약 내부고발로 인한 드림즈와 타이탄스 간 선수 교체 전면 무효화를 활용하여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 13회에서는 프로야구 중견급 선수들이 아니볼릭 스테로이드를 구입하려다가 적발되어 KPB 협회에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사장단은 회의를 통하여 적발 시 72경기 출장 정지에서 2년간의 활동 정지를 부여하되 자진 신고하는 선수에게는 1년간의 활동만 정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만약 협회의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선수들의 약물 복용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것이고 실력보다는 약물에 의존한 성적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선수의 실제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시장의 효율성은 저하된다.

15회에서는 드림즈의 권경민 사장이 1선발 투수 강두기 선수를 통산기록이 좋지 않은 타이탄스의 30대 초반 송일권, 이치상 선수와 교체하였다. 이에 백승수 단장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송일권, 이치상 두 선수 외에 현금 20억 원을 받는 조건이 기재된 이면계약서를 증거로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KPB 협회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협회의 상벌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드림즈와 타이탄스는 선수 교체를 전면 무효화하였다. 만약 협회의 이면계약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단은 부정한 이면계약을 통하여 부당한 편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는 다시 선수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KPB 협회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정부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구단 간의 선수 교체나 신인이나 2차 선수 지명 회의에서의 선수 영입을 협회가 간섭하여 구단별 소속 선수를 지정한다면 각 구단은 구단의 체제에 적합한 선수 영입에 실패하여 우수한 선수 육성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스토브리그* 7, 13회 방송분은 '시장 효율성',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대한 부차적 시청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1)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A country's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its ability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마지막으로 Mankiw가 제시한 경제학 8대 기본 원리는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스토브리그*에서 각 '구단'을 '나라'로 생각한다면 8대 기본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단의 생산성은 리그 성적으로 간주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드림즈는 전체 10개의 구단 중 지난 10년간의 성적이 8, 8, 9, 2, 9, 10, 10, 10, 10위로 KPB 리그에서 최저 생산성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은 구단의 낙후된 시설과 최저 연봉 총액으로 이어져 소속 선수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스토브리그* 1회와 2회에서는 최하위 구단인 드림즈와 준우승 구단인 바이킹스 홈구장의 훈련장 시설이 묘사·비교된다. 1회에서 드림즈 타자들이 고장난 훈련기구로 훈련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2회에서는 바이킹스 선수들이 훈련기구가 잘 정비된 좋은 훈련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드림즈와 바이킹스 간의 시즌 성적인 생산성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5회에서는 미국의 MiLB(Minor League Baseball) 홈구장의 모습이 다루어진다. 전반적으로 MiLB 구단은 MLB 구단보다 홈구장의 시설 수준과 연봉 총액이 낮으며 MiLB는 다시 Triple-A, Double-A, High-A(Class A-Advanced), Low-A(Class A), Rookie로 분류되며 하위분류 리그 간 차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리그 간의 차이는 리그의 생산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흥행 수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후생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이 있다.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반면에 국민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가 생산한 국내외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스토브리그* 2회에서 드림즈의 백승수 단장이 만약 임동규 선수를 강두기 선수와 완전 이적 계약을 통하여 교체한 것이 아니라 한 시즌 동안만 임동규 선수를 바이킹스에 임대하고 강두기 선수를 임차한 것이라면 드림즈의 '구단내총생산'은 완전 이적 계약을 통한 선수 교체 상황과 같지만 '구단선수총생산'은 드림즈에서의 임차기간 동안 강두

기 선수의 가치는 바이킹스의 '구단선수총생산'으로 바이킹스에서의 임대기간 동안 임동규 선수의 가치는 드림즈의 '구단선수총생산'에 포함되어지므로 완적 이적 계약 상황과 다르다. 이와 같이 *스토브리그*에서는 거시경제와 연관된 주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구단을 나라로 가정하고 구단 간의 선수 교체를 자유무역으로, KPB 협회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같은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한 협상의 기반을 제공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간주한다면 거시경제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을 학습하는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Mankiw의 경제학 9대와 10대 기본 원리는 8대 기본 원리와 함께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9대 기본 원리는 '정부가 화폐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물가는 상승한다.'이고 10대 기본 원리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 관계에 있다.'이다. 9대 기본 원리와 10대 기본 원리는 앞서 논의된 1-8대 기본 원리와 같이 *스토브리그* 방송분에 직접적으로 대입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여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14회에서 언급된 임동규 선수의 연봉은 12억 원이다. 만약 드라마 *스토브리그* 속 중앙은행이 내수경기 활성을 위해서 화폐를 많이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12억 원에 대한 가치는 이전보다 감소한다. 따라서 임동규 선수의 연봉은 더 인상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 확장 정책을 유지한다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된 수요는 가격 상승과 생산량 확대를 위한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져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다.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즈의 모기업인 재송그룹은 소비재 중심의 기업으로 7회에서 다루어진 재송그룹의 드림즈에 대한 연봉 총액 감소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 때문으로 인사조정이 드림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체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업률은 증가하고 실업률 증가는 가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그리고 수요 감소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Mankiw의 경제학 9대와 10대 기본 원리도 적절한 가정하에서 *스토브리그* 방송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에 직접적으로 대입하여 활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nkiw의 경제학 1-8대 기본 원리와 그에 상응하는 주요 경제개념 학습에 *스토브리그* 방송분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경제 수업에서 드라마 *스토브리그* 방송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원을 위하여 <표 2>에서는 본문에서 서술한 Mankiw의 경제학 기본 원리에 각각 대응되는 *스토브리그* 방송 회차와 상영 시간, 회차 내용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용어를 정리하였다.

<표 2> *스토브리그* 회차 정보와 경제학 기본 원리

연관 주제	기본 원리	회차 정보	상영 시간	연관 용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1.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5회 내기하실까요, 귀국길에 웃는 게 누군지?	47:53-52:45	대가, 외부효과, 공공재, 경합성
		9회 잠시나마 꿈을 꾸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백승수 씨	44:28-45:56	
	2. 어떤 것의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3회 야구는 제일 못 하는데, 미래도 없는 팀	00:08-01:11	기회비용, 정보 비대칭, 주인-대리인 문제
		4회 전례 없는 프로팀 스카우트 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15:35-28:57	
	3. 합리적 판단은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에 의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2회 임동규를 트레이드하겠습니다.	40:02-48:24	합리적 선택, 효용, 한계적 변화
		14회 임동규를 다시 데려와야 하는 이유	04:12-10:34	
	4.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	7회 삭감 폭이 좀 큽니다.	00:28-01:32	유인, 효율성 임금, 수요, 공급, 균형 가격하한제
		7회 삭감 폭이 좀 큽니다.	14:23-16:29	
		8회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41:21-43:07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5.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2회 임동규를 트레이드하겠습니다.	25:41-27:07	자유거래, 특성화, 지불용의, 판매용의, 절대우위, 비교우위
		2회 임동규를 트레이드하겠습니다.	48:39-49:31	
		14회 임동규를 다시 데려와야 하는 이유	19:13-24:56	
	6. 시장은 일반적으로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돕는다.	4화 전례 없는 프로팀 스카우트 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56:06-58:42	보이지 않는 손, 희소성, 예산제약
		7화 삭감 폭이 좀 큽니다.	16:37-19:46	
	7. 정부는 경우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13회 믿지만 확인은 할 겁니다.	41:56-43:21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 효율성
		15회 어떻게든 드림즈를 지키려고 합니다.	42:16-43:15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1회 단장 백승수입니다.	27:34-28:13	생산성, 경제적 후생, 국가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2회 임동규를 트레이드 하겠습니다.	46:24-46:58	
		5회 내기하실까요, 귀국길에 웃는 게 누군지?	22:30-23:07	
		5회 내기하실까요, 귀국길에 웃는 게 누군지?	42:35-42:54	

주: 제 2행의 기본 원리는 Mankiw(2020)의 경제학 9판 1부 1장의 경제학 기본 원리 1부터 8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pp.1-11). 제 4행의 상영 시간에 대한 정보는 이용하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본 표는 SBS All VOD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 수업에서 경제학 학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로 Mankiw의 경제학 1-8대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드라마 *스토브리그* 방송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제 과목은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낮은 개설 비율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낮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개설되는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과 같은 경제 기초 수업에서 경제학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생소할 수 있는 경제 용어를 현실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경제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활용 방안을 소개하였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프로야구 오프시즌에 구단의 경영단이 다음 시즌 전력강화를 위한 전략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이야기이다. 드라마 속 주인공을 최하위 구단의 새로 임명된 야구 전문가가 아닌 단장으로 설정하여 등장인물 간 대사를 통해 매회 진행되는 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야구에 문외하거나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의 시선까지 붙잡아 방영 기간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2020년에 종영하였으나 방송분은 OTT[11] 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과 방송분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근거로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중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선택하여 Mankiw의 경제학 1-8대 기본 원리 강의에 부차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회차 정보와 상영 시간을 제공하고 동일 회차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경제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활용 방안은 경제학 기본 원리와 기초 경제개념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고등교육에서의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경제과목 수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국내' '드라마'를 중심으로 분석하

11) Over-the-top media service의 약자로 TV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에 대한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일컫는다.

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드라마 *스토브리그*와 유사성이 있는 국외의 야구 경영단 영화인 *Moneyball*(2011)이나 *Trouble with the Curve*(2012) 등을 부차적으로 활용하거나 실제 KBO 리그나 MLB 자료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학 수업에서의 드라마 *스토브리그* 활용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야구'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국내' TV 프로그램를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판서 중심의 강의 수업에서 벗어나 TV 프로그램, 영화, 신문·방송 기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이야기하기(storytelling) 중심으로 경제 개념과 이론을 강의한다면 학생들이 경제학에 대해 보다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작성일 불명),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인터넷 자료 (2021. 5. 1. 접속).

김대식 · 노영기 · 안국신 · 이종철 (2020), 현대 경제학원론, 제7판, 박영사.

닐슨코리아(2019), 2019년 12월 13일 가구시청률 TOP 20, https://www.nielsenkorea.co.kr, 인터넷 자료 (2021. 5. 2. 접속).

_____(2020), 2020년 2월 14일 가구시청률 TOP 20, https://www.nielsenkorea.co.kr, 인터넷 자료 (2021. 5. 2. 접속).

안홍식(2019), 경제학원론, 제6판, 삼영사.

이신화(2020), 이신화 대본집 스토브리그 1, 김영사.

_____(2020), 이신화 대본집 스토브리그 2, 김영사.

이준구 ·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제6판, 문우사.

조상식 · 김형경 · 김도영(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 편성·운영 현황 조사, 교육부.

조순 · 정운찬 · 전성인 · 김영식 (2020), 경제학원론, 제10판, 율곡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보도자료(2020. 9. 21.).

Acemoğlu, D., D. Laibson, and J. List (2017), *Economics*, 2nd ed., Pearson.

Al-Bahrani, A. and D. Patel (2015), Using ESPN 30 for 30 to Teach Economics, *Southern Economic Journal*, 81(3), 829-842.

Arnold, R. A. (2018), *Economics*, 13th ed., Pearson.

Bade, R. and M. Parkin (2020), *Foundations of Economics*, 9th ed., Pearson.

_____ (2020), *Essential Foundations of Economics*, 9th ed., Pearson.

Becker, W. E. and M. Watts (1995), Teaching Tools: Teaching Methods in Undergraduate Economics, *Economic Inquiry*, 33(4), 692-700.

_____ (2001), Teaching Methods in US Undergraduate Economics Cours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2(3), 269-279.

Carter, L. K. and T. L. Emerson (2012), In-Class vs. Online Experiments: Is There a Differenc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3(1), 4-18.

Case, K. E., R. C. Fair, and S. E. Oster (2019), *Principles of Economics*, 13th ed., Pearson.

Caviglia-Harris, J. (2016), Flipping the Undergraduate Economics Classroom: Using Online Videos to Enhance Teaching and Learning, *Southern Economic Journal*, 83(1), 321-331.

Colander, D. (2019), *Economics,* 11th ed., McGraw-Hill.

Duncan, D., S. Muchiri, and M. Paraschiv (2019), The Economics of Breaking Bad: A Concept Guid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Education*, 18(2), 15-42.

Durham, Y., T. McKinnon, and C. Schulman (2007), Classroom Experiments: Not Just Fun and Games, *Economic Inquiry*, 45(1), 162-178.

Ghent, L. S., A. Grant, and G. Lesica (2011), The Economics of Seinfeld,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2(3), 317-318.

Gillis, M. T. and J. Hall (2010), Using The Simpsons to Improve Economic Instruction Through Policy Analysis, *American Economist*, 55(1), 84-92.

Hall, J. (Ed.) (2014), *Homer Economicus: The Simpsons and Econom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Hoyt, G. M. and K. McGoldrick (Eds.) (2012), *International Handbook on Teaching and Learning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Hubbard, R. G. and A. P. O'Brien (2020), *Economics*, 8th ed., Pearson.

_____ (2020), *Essentials of Economics*, 7th ed., Pearson.

Johnson, D. W. and R. T. Johnson (1994), *Leading the Cooperative School,* Interaction Book Company.

Krugman, P. and R. Wells (2017), *Economics*, 5th ed., Worth Publishers.

_____ (2019), *Essentials of Economic*s, 5th ed., Worth Publishers.

Kuester, D. D., G. D. Mateer, and C. J. Youderian (2014), The Economics of the Offic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5(4), 392-392.

Luccasen, R. A. and M. K. Thomas (2010), Simpsonomics: Teaching Economics Using Episodes of The Simpson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1(2), 136-149.

_____ (2014), Homer Economicus: The Simpsons and Economics, *American Economist*, 59(2), 195.

Madsen, P. T. (2013), The Financial Crisis and Principles of Economics Textbook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4(3), 197-216.

Mankiw, N. G. (2018),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Cengage Learning, 김경환 · 김종석 역(2018), 맨큐의 경제학, 제8판, 한티미디어.

Mankiw, N. G. (2020), *Principles of Economics*, 9th ed., Cengage Learning.

_____ (2020), *Essentials of Economics*, 9th ed., Cengage Learning.

Mateer, G. D., L. S. Ghent, and M. Stone (2011), TV for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2(2), 207-207.

_____ (2012), Econ 1-0-What?,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3(4), 440-440.

McConnell, C., S. Brue, and S. Flynn (2020), *Economics,* 22nd ed., McGraw-Hill Education.

McEachern, W. A. (2017), *Contemporary Economics*, 4th ed., Cengage Learning.

Miller, R. L. R. (2020), *Economics Today*, 20th ed., Pearson.

Parkin, M. (2019), *Economics*, 13th ed., Pearson.

Salemi, M. K. (2002), An Illustrated Case for Active Learning, *Southern Economic Journal*, 68(3), 721-731.

Samuelson, P. A. and W. D. Nordhouse (2009), *Economics*, 19th ed., McGraw-Hill Education.

Schiller, B. and K. Gebhardt (2018), *The Economy Today*, 15Th ed., McGraw-Hill.

_____ (2019), *Essentials of Economics,* 11th ed., McGraw-Hill.

Sexton, R. L. (2006), Using Short Movie and Television Clips in the Economics Principles Clas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7(4), 406-417.

Tierney, J., G. D. Mateer, B. Smith, J. Wooten, and W. Geerling (2016), Bazinganomics: Economics of The Big Bang Theory,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7(2), 192.

Willingham, D. T. (2021), *Why Don't Students Like School? A Cognitive Scientist Answers Questions About, How the Mind Works and What It Means for the Classroom,* 2nd ed., Wiley.

Wooten, J. J. (2018), Economics Media Library,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9(4), 364-365.

_____ and B. Lynch (2020), A Guide to Teaching Economics with Superstore, Available at SSRN 3625213.

_____ and K. Staub (2019), Teaching Economics Using NBC's Parks and Recreatio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50(1), 87-88.

_____, K. Staub, and S. Reilly (2020), Economics within ABC's Modern Family,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51(2), 210.

<Abstract>

Hot Stove Economics: Teaching Economics Using Episodes of *Stove League*

Jihye Kam*

To attract students' attention and to facilitate student learning, storytelling method with concrete examples can lower the entry barrier for students without previous exposure to economics. This study anchors on a television series "Stove League" as a leading example to discuss the first eight principles of Mankiw as well as other primary economic concepts including scarcity, opportunity cost, rational choice, free trade, comparative advantage, externality, public goods, market failure, and productivity. This pedagogy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not only to introductory economics courses in higher education but also various economics-related courses in secondary education.

Key words: Economics education, Introductory economics, Pedagogy, Teaching, TV show

원고접수: 2021년 07월 14일 심사일: 2021년 07월 28일 ~ 2021년 08월 09일
게재확정: 2021년 08월 09일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Shenzhen (jkam@hit.edu.cn).